

가 감소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993년 6월부터 1994년 8월 사이에 발생한 각각의 요일별, 주·야간별, 촬영실별 필름 소모량과 재촬영 필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하기 전인 1993년 6월부터 1994년 4월까지를 1군으로 하고 실시 후인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를 2군으로 나누어 요일, 주·야간, 촬영실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필름 소모량에 대한 재촬영 필름의 비(%)를 구하였다.

요일별 분석에서는 1군 2.8%, 2군 1.3%로 53.6%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촬영실별 분석에서는 1군 1.75, 2군 0.7%로 58.8%의 감소, 주간분석에서는 1군 2.8%, 2군 1.3%로 53.6%의 감소, 야간은 1군 2.2%, 2군 1.0%로 54.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2군이 1군에서보다 55.1%의 감소를 나타냈다.

#### 결론 :

요일, 촬영실, 주·야간별 모두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한 후의 재촬영 건수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매일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16>

## 이온성과 비이온성 조영제를 이용한 CT와 IVP검사의 부작용 사례분석

김영성\* · 여영복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 목적 :

CT 검사에서 이온성 조영제와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고, IVP 검사에서는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여 각종 부작용의 사례를 분석, 평가하므로써 임상에서 보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검사를 시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991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CT 검사를 시행한 환자(이온성 조영제 400예, 비이온성 조영제 771예)와 IVP 검사를 시행한 환자(비이온성 조영제 3,984예)를 조영제 주사 후 부작용의 발생 시점, 성별, 연령별, 증상별로 부작용을 분석하였다.

#### 결과 :

1) 이온성과 비이온성 조영제의 부작용 비교에서 이온성 8.0%보다 비이온성은 평균 3.5%로 훨씬 적게 나타났다.

2) 정맥주사에 의한 조영제 부작용 발생 시점은 주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56%, 주입 후 5분까지 25%, 5분 이후에서 19%로 나타났다.

3) 성별에 의한 부작용 발생 빈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10~25% 높게 나타났다.

4) 연령에 따른 부작용 발생 분포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증상별 부작용은 오심, 구토, 두드러기 순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보다 비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부작용이 월등히 감소현상을 보였으므로 비용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비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검사전 시행하는 eye ball test 등은 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뿐, 실제적으로 무의미함을 보였으므로 이보다는 주사후 5분 이상을 관찰하여 부작용발생시 즉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 <17>

## 배변조영술의 기술적방법 고찰 및 남녀 정상인의 정상치 분석

유병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